

탄신 430주년 의암 주논개 대축제
평가 결과 보고서



2004. 11

(사)의암 주논개 정신선양회

탄신 430주년 의암 주논개 대축제
평가 결과 보고서



2004. 11

(사)의암 주논개 정신선양회

■ ■ ■ ■ ■ 목 차 ■ ■ ■ ■ ■

I. 의암 주논개 대축제 개요

1. 축 제 개 요
2. 축 제 목 적
3. 축 제 내 용

II. 서 론

1. 평가 목적
2. 평가 내용
3. 평가 방법

III. 본 론

1. 양적 평가(설문조사 결과분석)
2. 질적 평가(현장조사 결과분석)

IV. 축 제 총 평

1. 서술적 총평
2. 축제 대안 제시

V. 별 첨

- 탄신 430주년 의암 주논개 대축제 설문지

1. 의암 주논개 대축제 개요

1. 축 제 개 요

축 제 명	탄신430주년 의암 주논개 대축제
축제일시	2004년 10월 15일~16일
축제장소	의암공원 및 장수군 일원
주 최	장수군/(사)의암 주논개 정신 선양회/ KBS 전주방송총국
주 관	(사)의암 주논개 정신 선양회
축제성격	의암 주논개 선양 및 지역문화 축제
참여인원	장수군민 및 외지 관광객 약 1만여명
축제예산	2억 2천만원

2. 축 제 목 적

- 논개사의 재정립과 세계 속의 여인상 구현
- 군민의 날 행사와의 연계로 군민화합의 장 마련
- 대자연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친환경 축제
- 장수군 특산물과의 연계로 홍보 강화
- 여성단체와의 연계 행사로 충절의 여인상 구현

3. 축 제 내 용

● 3개 부문 24개 종목

- 주요행사(9): 군민체육대회, 마당극 공연, 전야제, 주논개 제례, 기념식, 주논개 충절무
호남좌도 농악시연, 주논개 진혼무, 주논개 선발대회, 군민화합한마당
- 부대행사(8): 의암 백일장, 한시 백일장, 경노잔치, 무진장 게이트볼대회
전북 남녀 궁도대회, 군수배 테니스대회, 논개배 탁구대회
향토음식 맛자랑 품평회
- 상설행사(6): 전통문화예술 체험관, 장수사과 특별기획전, 전국 사진공모전 및 촬영대회
풍물 야시장, 사진/시화/서예 전시회, 역사속의 논개 이야기

II. 서 론

1. 평 가 목 적

2. 평 가 내 용

3. 평 가 방 법

II. 서 론

전국적으로 600여개가 넘는 지역축제의 현실에서 볼 때 현대는 가히 축제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축제 중 몇몇 축제는 말 그대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민이 화합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만 그렇지 못한 축제도 많이 있다. 몇 천만원의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전국 축제를 지향하는 특산물 축제도 있으며, 지역 예술인 몇몇이 주가 되어 치르는 작은 예술제 같은 축제도 많이 있다.

의암 주논개 대축제는 '주논개'라는 인물 선양을 위해, 그리고 장수군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치러지는 장수군의 대표적인 축제이다. 정확한 축제령을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의 축제 모습은 2000년도를 전후하여 그 모습을 갖추었다. 예산이나 축제 규모 면에서도 어느 정도 대표성을 띄고 있으며 군민들의 인지도나 축제 참여도는 높은 편이다. 더불어 '논개선양'이라는 축제의 취지를 살려 내고 있다.

금번 탄신430주년 의암 주논개 대축제 역시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이 곳곳에 보였다. 더불어 기간은 짧아 졌지만 행사의 내실화 면에서는 예년 축제보다 더 성숙한 축제 운영을 이루었다. 그러나 여전히 특색 있는 지역축제 만들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논개 대축제 역시 다른 지역축제와의 차별성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더불어 축제를 통한 전국적인 이슈화 및 지역 홍보면에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축제의 주제가 되는 인물선양 축제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웃한 남원 춘향제의 경우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금번 춘향제 역시 내부적인 내용을 그대로 답습했으며 프로그램 면에서도 예년과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만큼 인물 위주의 선양축제는 한계가 있다. 역사를 미화시키거나 왜곡시켜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의 인물 됴됨이를 본받자는 것이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위축시킨다. 반면 무주군의 경우 환경을 컨셉으로 '반딧불 축제'를 개최한다. 웰빙과 환경이라는 것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있지만 사실 환경이라는 대의 명제는 많은 다양성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논개 대축제도 이러한 부분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본 평가는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여 탄신 430주년 의암 주논개 대축제의 문제점과 발전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하는 의도로 시도되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 축제가 문화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역축제의 소비자가 되는 지역주민과 외부 관광객의 축제 소비행태,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축제의 역할 등 다방면에 걸쳐 종합적인 축제평가를 진행하였다. 본 평가 자료가 명년 의암 주논개 대축제를 기획하고 발전시키는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평 가 목 적

- 장수군민과 관광객의 축제 소비행태 분석을 통한 축제 기획/운영의 방향성 제시
- 프로그램 및 운영에 관한 세부평가를 통해 축제 서비스 및 축제의 질 상승 촉구
- 객관적이고 계량화 된 데이터 대입으로 의암 주논개 대축제의 문제점 지적과 추후행사에 대한 축제 대안 제시

2. 평 가 내 용

탄신430주년 의암 주논개 대축제의 평가 내용은 기본적으로 축제가 행해진 2004년 10월 15일 ~ 16일(2일간)까지이며 부가적으로 축제의 기획/ 추진과정, 그리고 추후 행사에 대한 대안 제시를 본 평가의 내용으로 함.

- 축제 개최 의의 및 명칭 평가 -목적 및 인지도 측정
- 컨셉 설정의 적정성 평가 -축제의 방향성 제시
- 행사장 시설 및 운영현황 평가 -축제 서비스 개선 제시
- 축제 홍보의 효율성 평가 -축제 홍보 활동의 효율성 제시
- 축제 프로그램의 적정성 평가 -프로그램의 질적 상승 제시
- 관람객 호응도 평가 -축제 참가 만족도 측정

3. 평 가 방 법

탄신 430주년 의암 주논개 대축제 평가를 위한 방법으로는 직접 현장 체험을 통한 현장평가,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평가, 관람객 면접 및 인터뷰를 통한 질적 평가, 평가요원 전원의 집단적 토론평가를 병행 실시

- ◆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양적 평가
 - 축제 기간인 2004년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주논개 대축제에 참가한 사람들 중 300여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
- ◆ 관람객 면접 결과 분석을 통한 질적 평가
 - 축제 기간인 2004년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현장에 상주하며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및 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모니터링 실시
- ◆ 집단적 토론 평가
 - 축제 평가에 참여한 모든 인원이 1일 행사 종료 후 당일 행사 및 축제 전반에 걸친 토론 평가 실시

III. 본 론

■ 양적 평가(설문조사 결과분석)

1. 설문조사 및 분석방법
2. 응답자의 특성
3. 축제 분위기 및 홍보
4. 행사에 대한 부문별 평가
5. 행사 내용에 대한 평가
6. 축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7. 기 타

III. 본 론 -양적평가(설문조사 결과분석)

1. 설문조사 및 분석방법

‘탄신 430주년 의암 주논개 대축제’에 대한 평가를 위해 이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축제 기간인 2004년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주논개 대축제에 참가한 사람들 중 300여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실제 분석에 사용된 유효 표본수는 290명이었으며, 각 문항별 무 응답자를 제외한 실제 응답자를 대상으로 백분율을 구하였다.

각 문항별 빈도수 분석과 함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교차분석의 경우는 이 평가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연령별 및 거주지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응답자의 특성

설문조사에 응답한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 143명(50.0%), 여자 143명(50.0%)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미만이 25.8%,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20.9%, 30대 18.8%,40대 14.3%, 5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10.1%로 나타났다. <표 1>

직업별로는 학생이 34.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농·어업 및 축산업(16.2%), 자영업(11.5%), 주부(10.8%)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 보면, 장수군내 거주자가 61.8%였으며, 장수군 외 전북지역 거주자는 21.8%, 전북 외 지역 거주자는 16.4%였다.

학력별로는 대학교 재학 및 졸업자가 30.5%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의 학력을 가진 사람 (36.1%), 중학교 재학 및 졸업자(23.6%)의 순이었다.

<표 1> 응답자의 특성

구 분	표본수	특 성
성 별	286명	남자143명(50.0%), 여자 143명(50.0%) <무응답 4명>
연 령	287명	20대 미만 74명(25.8%), 20대 60명(20.9%) 30대 54명(18.8%), 40대 41명(14.3%) 50대 29명(10.1%), 60대 이상 29명(10.1%) <무응답 3명>
직 업	278명	농어업 및 축산업 45명(16.2%), 사무행정직 14명(5.0%) 공무원 8명(2.9%), 교사 4명(1.4%), 전문직 3명(1.1%) 생산직 근로자 6명(2.2%), 주부 30명(10.8%) 자영업 32명(11.5%), 서비스업 9명(3.2%) 학생 97명(34.9%), 무직 8명(2.9%), 기타 22명(7.9%) <무응답 12명>
거주지	280명	장수군내 173명(61.8%), 장수군 외 전북지역 61명(21.8%) 전북 외 지역 46명(16.4%) <무응답 10명>
학 력	275명	무학 9명(3.3%), 초등학교 졸업(재학) 31명(11.3%) 중학교 졸업(재학) 65명(23.6%), 고등학교 졸업(재학) 80명(29.1%) 대학교 졸업(재학) 84명(30.5%), 대학원 이상 6명(2.2%) <무응답 15명>

3. 축제 분위기 및 홍보

(1) 축제 분위기

축제 기간 동안 ‘장수군의 거리에서 축제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느끼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2.3%가 ‘다소 느낀다’, 또 26.7%가 ‘많이 느낀다’고 응답해 응답자의 59%의 축제 분위기를 느낀다고 응답했는데, 이러한 결과는 2003년 70%이상의 사람들이 축제분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답한 것에 비해 비교적 축제분위기를 느끼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축제 분위기를 별로 못 느끼거나 전혀 못 느낀다는 응답이 14.6%로 작년의 9%에 비해 다소 늘어났다. <표 2>

연령별로는 20대 미만~40대까지는 대체로 53%~58의 응답자들이 축제분위기를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50대 응답자의 62.1% 그리고 60대이상 응답자의 79.3%가 축제분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응답해 연령이 높을수록 축제분위기를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작년의 경우 50대 이상 응답자의 91.0%가 축제 분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답했던 것에 비한다면, 역시 축제 분위기를 느끼는 강도가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거주지별로는 장수군내 거주자들(60.5%)이 장수군 외 지역 거주자보다 다소 축제 분위기를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3년의 경우 장수군 외 지역 거주자들이 장수군내 거주자들보다 더 축제 분위기를 느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2> 축제 분위기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많이 느낌	77	26.7
다소 느낌	108	32.3
그저 그렇다	57	26.4
별로 못 느낌	20	11.1
전혀 못 느낌	5	3.5
계	288	100.0

(2) 축제 정보 습득

작년의 경우 ‘현수막 및 포스터’를 통해 축제의 정보를 얻는 비율이 ‘주위 사람’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비율보다 다소 많았으나, 올해는 ‘주위 사람’(28.5%)을 통해 정보를 얻는 비율이 현수막 및 포스터’(21.5%)를 통해 ‘축제 정보’를 얻는 비율보다 많았다. 또한 ‘각종 팜플렛 및 안내책자’(16.0%)를 통해 축제 정보를 얻고 있다는 응답이 ‘TV’(12.4%)를 통해 정보를 얻었다는 응답자들보다 많았다는 점이 작년과 다른 점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축제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는 비율이 작년의 경우 2.2%였으나 올해는

5.9%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분야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3>

장수군내 거주자들은 ‘주위사람’(26.74%)과 ‘현수막 및 포스터’(26.16%)를 통해 주로 축제 정보를 얻고 있으며, 장수군 외 전북지역 사람들은 ‘주위사람’(34.4%), ‘각종 팜플렛 및 안내책자’(19.7%), ‘현수막 및 포스터’(16.4%), ‘잡지’(6.6%),TV(6.6%)의 순으로 축제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외 지역 거주자들은 ‘주위사람’(24.4%)에 이어 ‘인터넷’을 통해 축제정보를 얻었다는 응답(17.8%)이 두 번째로 많았으며, ‘현수막 및 포스터(15.6%), ‘각종 팜플렛 및 안내책자’(11.1%), ‘TV(8.9%)의 순으로 축제에 관한 정보를 많이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축제 정보 습득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신문	13	4.5
잡지	9	3.1
TV	25	8.7
라디오	8	2.8
팜플렛 및 안내책자	46	16.0
현수막 및 포스터	62	21.5
주위사람	82	28.5
인터넷	17	5.9
여행사 및 관광안내소	2	0.7
기타	24	8.3
계	288	100.0

(3) 축제 홍보

응답자들의 41.0%가 축제 홍보가 ‘잘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잘 안된 것으로 보는 응답자는 19.8%로 나타나 올해의 축제 홍보는 비교적 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작년에 비해 ‘잘 되었다’는 평가가 1.2% 줄고, ‘잘 못되었다’는 평가가 3.2%증가해, 축제 홍보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4>

연령별로는 20대 미만(47.3%)과 50대 이상의 연령층은 축제홍보가 잘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50대 46.4%, 60대 이상 51.7%), 특이한 것은 60대 이상 연령층의 경우 ‘잘 안되었다’는 평가도 24.1%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20대와 30대 연령층은 각각 25.0%와 22.2%의 비율로 축제 홍보가 잘 안되었다고 평가 하고 있다.

거주지별로는 ‘장수군내 거주자’(47.7%)와 ‘전북 외 지역 거주자’(38.0%)보다 ‘장수군 외 전북지역 거주자’들의 긍정적 평가가 낮게 나타났다(27.9%)

<표 4> 축제 홍보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매우 잘됨	40	13.9
잘 됨	78	27.1
보 통	113	39.2
잘 안 됨	39	13.5
매우 잘 안됨	18	6.3
계	288	100.0

(4) 축제 인지 여부

‘의암 주논개 대축제’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의 81.4%가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알고 있다’는 응답을 하고 있으며, 전혀 몰랐다는 응답은 8.7%에 불과해 이 축제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설문에 결과는 작년과 동일하게 나타났다.<표 5>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 그리고 50대에서 잘 몰랐다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60대 이상과 20대 미만의 연령층에서는 축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5> 축제인지 여부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잘 알고 있었음	112	38.8
조금 알고 있었음	112	38.8
들어 본적 있음	40	13.8
전혀 몰랐음	25	8.7
계	289	100.0

(5) 축제 참가 동기

작년의 응답자들은 ‘축제 참여 동기’에 대해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25.5%), ‘지역축제에 관심이 많아서’(23.4%),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해’(18.6%), ‘다양한 문화체험을 위해’(13.5%)의 순으로 응답을 하고 있었으나, 올해에는 ‘지역축제에 관심이 많아서’ 축제에 참여했다는 응답이 24.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지역 주민의 화합을 위해’(18.8%),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16.0%)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요즘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역축제에 대한 관심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6>

연령별로는 20대 미만은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 축제에 참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24.7%), 다음으로 ‘지역축제에 관심이 많아서’(21.9%), ‘다양한 문화체험을 위해’(16.4%)의 순이었다. 20대의 경우는 ‘지역축제에 관심이 많아서’와 ‘다른 사람의 권유로’라는 응답이 각각

18.3%로 가장 응답비율이 높았고, 다음이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15.0%)축제에 참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의 경우는 '지역축제에 관심이 많아서'(26.4%), '다양한 문화체험을 위해'(20.8%) 축제에 참가하고 있으며, 40대와 50대는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해'(각각 29.3 %, 37.9%), '지역축제에 관심이 많아서'(각각 26.8%, 20.7%) 축제에 참여했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60대 이상의 연령층은 '지역축제에 관심이 많아서'(41.4%),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해'(34.5%) 축제에 참여한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장수군내 거주자의 경우 '지역축제에 관심이 많아서'(25.7%), '지역 주민의 화합을 위해'(24.0%) 축제에 참여했다는 응답이 많아 작년에 이어 장수군 주민들이 지역축제 및 지역화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장수군 외 전북지역 거주자의 경우 '지역 축제에 관심이 많아서'와 '다른 사람의 권유로' 축제에 참가했다는 응답이 16.4%로 많았으며, '다양한 문화체험을 위해' '지역 주민의 화합을 위해' '다른 사람의 권유로'라는 응답이 각각 14.8%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전북 외 지역 거주자의 경우는 축제에 참가하게 된 이유를 '지역축제에 관심이 많아서'(28.3%), '다양한 문화체험을 위해'(19.6%)의 순으로 들고 있다.

<표 6> 축제 참가 동기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지역 축제에 관심이 많아서	70	24.4
다양한 문화 체험을 위해	38	13.2
지역 주민의 화합을 위해	54	18.8
다른 사람의 권유로	30	10.5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	46	16.0
우연히 참가	25	8.7
기 타	24	8.4
계	287	100.0

(6) 주로 이용한 교통수단

축제참가자들이 주로 이용한 교통수단은 '자가용'이 35.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보'(32.4%), '버스'(24.3%)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표 7> 이러한 결과는 작년의 경우 자가용을 이용했다는 응답 60.7%에 비하면 자가용 이용률이 매우 낮아지고 도보 또는 버스 등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장수군내 거주자의 경우 '도보'(43.2%)로 축제에 참가한 사람의 비율이 작년에 비해 약 2%정도 늘었으며 '자가용' 이용자가 27.2%로 작년(40.2%)에 비해 대폭 줄었다. 작년에 14.5%에

불과했던 '버스' 이용자가 올해에는 21.9%로 증가함으로써 이 축제에 참가하는 장수군민들의 의식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수군 외 거주자의 경우도 '자가용 이용자가' 많이 감소하고 버스 등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주로 이용한 교통수단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버 스	69	24.3
택 시	5	1.8
자가용	100	35.2
도 보	92	32.4
기 타	18	6.3
계	284	100.0

4. 행사에 대한 부문별 평가

행사와 관련된 내용은 5점 척도를 이용해 조사하였다.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점으로 처리했다. 행사관련 부분은 '접근성' '안내요원 및 시설' '편의시설' '행사내용' '기타'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조사했다.

(1) 접근성

① 행사장까지의 접근 용이성

응답자의 23.6%가 행사장까지 접근이 '매우 용이하다'고 응답했고, 36.1%가 '용이하다'고 답해, 응답자의 59.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접근 용이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6.1%에 불과해, 축제 참가자가 행사장에 접근하는 데는 별로 불편을 느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8>

<표 8 > 행사장까지 접근 용이성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매우 그렇다	66	23.6
그렇다	101	36.1
보통이다	96	34.3
그렇지 않다	10	3.6
매우 그렇지 않다	7	2.5
계	280	100.0

이를 5점 척도에 부과한 점수로 환산하면, '행사장까지의 접근 용이성'은 평균 3.75점(5점 만점, 3점이 보통임)을 얻어 이 부문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장수군내 거주자의 평균점수는 3.71점이었으며, 장수군 외 전북지역 거주자의 평균점수는 3.75점, 전북 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점수는 3.82점으로 나타나 장수군내 거주자들 보다 타 지역 거주자들이 '접근용이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② 행사장간의 이동 편리성

'행사장간의 이동'문제와 관련해 응답자의 14.4%가 '매우 편리하다'고 응답했고, 34.2%는 '편리하다'고 함으로써 전체의 48.6%가 행사장사이를 오가는데 '편리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9>

'행사장간의 이동 편리성'을 5점 척도로 환산한 평균점수는 3.46점이었으며, 장수군내 거주자들(3.37점)보다는 장수군 외 거주자들(3.53점과 3.63)이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행사장간 이동 편리성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매우 그렇다	38	14.4
그렇다	90	34.2
보통이다	95	36.1
그렇지 않다	34	12.9
매우 그렇지 않다	6	2.3
계	263	100.0

③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

응답자의 41.5%는 축제장소와 주변 관광지가 잘 연계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나, 21.4%의 응답자들은 주변 관광지와 잘 연계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이 항목의 평균점수는 3.28점이었는데, 장수군내 거주자들은 3.25점 장수군 외 거주자들은 각각 3.27점과 3.27점을 주어 이 역시 장수군 외 지역사람들이 주변관광지와의 연계성을 비교적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매우 그렇다	27	10.7
그렇다	78	30.8
보통이다	94	37.2
그렇지 않다	46	18.2
매우 그렇지 않다	8	3.2
계	253	100.0

<표 11> 접근성 <매우 그렇다 5점~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구 분	전 체	장수군 內 거주자	장수군 外 거주자
행사장까지 접근 용이성	3.75	371	3.79
행사장간의 이동 편리성	3.46	3.37	3.63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	3.28	3.25	3.32

(2) 안내요원 및 시설

① 안내요원의 친절도

‘안내요원의 친절도’를 묻는 물음에 응답자의 48.9%가 ‘친절하다’는 응답을 보인 반면, ‘친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14.9%로 나타나 이번 축제의 안내요원들의 친절도에 대한 응답은 작년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안내요원의 친절에 대한 평균점수는 3.52점이었으며, 장수군내 거주자(3.35점)에 비해 장수군외 거주자들이 훨씬 친절하다는 평가(3.78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표12> 안내요원의 친절도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매우 그렇다	65	24.3
그렇다	66	24.6
보통이다	97	36.2
그렇지 않다	23	8.6
매우 그렇지 않다	17	6.3
계	268	100.0

② 안내요원 수의 충분성

‘충분하다’는 응답이 36.9%로 이 부분은 비교적 응답자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도 2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안내요원의 수와 관련한 점수는 3.17점으로 평균(3.00점)을 웃도는 수준은 유지하고 있으며, 장수군내 거주자들(3.10점) 보다는 장수군 외 거주자들(3.30점)이 이에 대해 약간의 점수를 더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6>

<표 13> 안내요원 수의 충분성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매우 그렇다	35	13.6
그렇다	60	23.3
보통이다	93	36.2
그렇지 않다	51	19.8
매우 그렇지 않다	18	7.0
계	257	100.0

③ 안내시설의 충실도

작년의 경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부분이다. 올해의 경우는 평가 점수가 약간 올라가기는 했지만, '안내시설이 충실했다'는 응답이 39.1%를 차지한 반면 부정적인 응답도 27.2%에 달해 앞으로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은 부분이라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표 14>

이 부분의 평균점수는 3.17점으로 작년보다 높아졌으며, 장수군 외 거주자와 전북지역 거주자들(각각 3.16점)보다는 전북 외 지역 거주자들이 비교적 후한 점수(3.28점)를 주고 있다.

<표 14> 안내시설의 충실도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매우 그렇다	32	12.3
그렇다	70	26.8
보통이다	88	33.7
그렇지 않다	52	19.9
매우 그렇지 않다	19	7.3
계	261	100.0

④ 안내 자료의 충실도

안내시설과 함께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40.5%의 응답자들은 축제의 안내 자료가 '충실하다'는 응답을 했고, 19.9%의 응답자들은 안내 자료가 불충실하다고 지적했다.<표 15>

이에 대한 평균 점수는 3.26점으로 작년의 3.27점과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도 전북지역 외 거주자들(3.47점)이 장수 및 전북지역 거주자들(각각 3.21점과 3.24점)보다 비교적 높은 점수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3.44점)

<표 15> 안내 자료의 충실도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매우 그렇다	27	10.7
그렇다	75	29.8
보통이다	100	39.7
그렇지 않다	37	14.7
매우 그렇지 않다	13	5.2
계	252	100.0

<표 16> 안내요원 및 시설 <매우 그렇다 5점~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구 분	전 체	장수군 內 거주자	장수군 外 거주자
안내 요원의 친절성	3.52	3.35	3.78
안내 요원수의 충분성	3.17	3.10	3.30
안내 시설의 충실도	3.17	3.16	3.22
안내 자료의 충실도	3.26	3.21	3.36

(3) 편의 시설

① 주차시설 이용의 편리성

주차시설과 관련해 응답자의 37.9%가 ‘불편하다’는 응답을 하고 있으며, 주차시설 이용 시 편리했다는 응답은 31.6%였다. <표 17> 이러한 결과는 작년에 비해 나아지기는 했으나 앞으로 더욱 개선해야할 부분이다.

주차시설 문제에 대해 축제 참가자들이 매긴 점수는 2.91점으로 평균점수인 3.0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수군 거주자들은 이에 대해 2.84점, 장수군 외 거주자들은 3.02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 20>

<표 17> 주차시설 이용의 편리성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매우 그렇다	22	8.3
그렇다	62	23.3
보통이다	81	30.5
그렇지 않다	73	27.4
매우 그렇지 않다	28	10.5
계	266	100.0

② 휴식 공간 만족도

휴식공간의 경우는 ‘잘되어 있다’(33.50%), ‘보통이다’(33.1%), ‘잘 되어있지 못하다’(35.5%) 등으로 응답해 대체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휴식 공간 만족도에 대한 평균점수는 3.03점이었으며, 장수군 거주자(3.01점)에 비해 장수군 외 거주자들(3.11)이 비교적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0>

<표 18> 휴식 공간 만족도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매우 그렇다	27	10.2
그렇다	62	23.3
보통이다	88	33.1
그렇지 않다	71	26.7
매우 그렇지 않다	18	6.8
계	266	100.0

③ 화장실의 정돈성

편의 시설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부분이 화장실의 정돈성인데, ‘잘 정돈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9.2%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8.3%였다. <표 19>

화장실의 경우 평균점수는 3.12점으로 나타났으며, 장수군 거주자(3.09점)보다는 장수군 외

거주자들이(3.21점)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0>

<표 19> 화장실 정돈성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매우 그렇다	27	10.5
그렇다	74	28.7
보통이다	84	32.6
그렇지 않다	50	19.4
매우 그렇지 않다	23	8.9
계	258	100.0

<표 20> 편의 시설 <매우 그렇다 5점~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구 분	전 체	장수군 內 거주자	장수군 外 거주자
주차시설 이용의 편리성	2.91	2.84	3.02
휴식공간 만족도	3.03	3.01	3.11
화장실의 정돈성	3.12	3.09	3.21

(4) 행사 내용

① 행사 내용의 다양성

응답자의 38.8%가 ‘행사 내용이 다양하다’는데 동의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견해는 21.3%였으나, 작년의 경우 응답자의 과반수인 53.6%가 ‘다양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또 15.9%의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는 답을 한 것에 비한다면, 올해의 행사참가자들은 행사내용의 다양성 부분을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

이를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의 연령층(3.32점)과 50대(3.36점), 60대 이상의 연령층(3.75점)이 비교적 행사 내용을 다양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20대~40대의 연령층은 비교적 낮게 평가하고 있다.(3.13점~3.14점) <표 24>

지역별로는 장수군내 거주자와 장수군 외 거주자의 평균점수가 각각 3.25점과 3.21점으로 나타나 행사의 다양성을 평가하는데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1> 행사 내용의 다양성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매우 그렇다	36	13.7
그렇다	66	25.1
보통이다	105	39.9
그렇지 않다	42	16.0
매우 그렇지 않다	14	5.3
계	263	100.0

② 행사 내용의 재미성

응답자의 37.7%가 행사 내용이 '재미있었다'고 응답한데 반해, 21.9%의 응답자가 '재미없었다'고 답해 비교적 행사내용이 재미있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작년(47.1%가 행사 내용이 '재미있었다'고 답함)과 비교할 때 금번 의암 주논개 대축제는 재미 면에서는 작년 보다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연령층의 경우 '재미성'에 대한 평가가 3.27점, 30~40대 연령층은 3.08점, 50대 이상 연령층은 3.50점으로 평가하고 있어, 행사 내용에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훨씬 재미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지역별로는 장수군내 거주자 3.23점, 장수군 외 거주자 3.18점으로 평가해 다른 항목과는 달리 장수군내 거주자들이 상대적으로 행사가 재미있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2> 행사 내용의 재미성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매우 그렇다	30	11.5
그렇다	68	26.2
보통이다	105	40.4
그렇지 않다	44	16.9
매우 그렇지 않다	13	5.0
계	260	100.0

③ 일반인 참여 행사의 풍부성

작년과 마찬가지로 행사 내용에 관한 문항 중 가장 평가를 낮게 받은 항목인데(전체 평균 2.98),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많았다'는 응답은 전체의 30.5%였으며, '많지 않았다'는 응답은 34.4%를 차지했다. <표 23>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의 경우 3.06점으로 평가해 보통정도의 점수를 받았고, 30~40대 연령층은 2.74점을 주어 '평균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으며, 50대 이상의 연령층은 3.26점으로 비교적 일반인 참여 행사가 많았다는 쪽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

지역별로는 장수군내 거주자들(2.97점)에 비해 장수군 외 거주자들(3.02점)이보다 상대적으로 행사참여의 기회가 많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표 23> 일반인 참여 행사의 풍부성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매우 그렇다	28	10.7
그렇다	52	19.8
보통이다	92	35.1
그렇지 않다	67	25.6
매우 그렇지 않다	23	8.8
계	259	100.0

<표 24> 행사 내용 <매우 그렇다 5점~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구 분	전체	20대 이하	30~40	50대 이상	장수군 내 거주자	장수군 외 거주자
행사 내용의 다양성	3.26	3.23	3.14	3.56	3.25	3.21
행사 내용의 재미성	3.22	3.27	3.08	3.50	3.23	3.18
일반인 참여 행사의 풍부성	2.98	3.06	2.74	3.26	3.97	3.02

(5) 기 타

① 음/식료품 가격의 적정성

축제기간 중 판매한 음/식료품 가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4%가 ‘적정하지 않다’, 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작년의 52.6%에 비해 다소 나아지기는 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음식료품의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표 25>

작년과 마찬가지로 음식료품 가격에 대한 축제 참가자들의 반응은 행사 일반에 관한 설문 중 가장 낮게 나왔는데, 이 항목에 대한 평균점수는 2.61점이었으며, 장수군 외 거주자들의 반응(2.81)에 비해 장수군 거주자들의 반응(2.46점)이 보다 낮게 나왔으며, 전북 외 지역 거주자들은 음/식료품의 가격을 보통(30.0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 28>

<표 25> 음/식료품 가격의 적정성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매우 그렇다	21	8.1
그렇다	26	10.0
보통이다	86	33.2
그렇지 않다	82	31.4
매우 그렇지 않다	44	17.0
계	259	100.0

② 토산품 가격의 적정성

토산품의 가격도 ‘적정하지 않다’(31.9%)는 응답이 ‘적정하다’(26.4%)는 응답보다 다소 높았으나 작년에 비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다소 늘어났다. <표 26>

이 항목에 대한 평균점은 2.93로 응답자들이 약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장수군 거주자들의 점수는 2.88점, 장수군 외 거주자들의 반응은 3.07점이었는데, 장수군 외 전북지역 거주자들의 반응(2.78점)이 가장 낮았다. <표 28>

<표 26> 토산품 가격의 적정성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매우 그렇다	19	7.5
그렇다	48	18.9
보통이다	106	41.7
그렇지 않다	59	23.2
매우 그렇지 않다	22	8.7
계	254	100.0

③ 먹거리의 다양성

축제기간 중 마련된 먹거리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이 약간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의 34.7%가 ‘먹거리가 다양하다’는데 동의한 반면, 28.2%의 응답자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37.1%였다. <표 27>

이에 대해 응답자들이 매긴 평균점수는 3.11점이었으며, 장수군내 거주자들은 3.06점, 장수군 외 거주자들은 3.18점(전북 외 지역 거주자들은 3.52점)으로 평가했다. <표 28>

<표 27> 먹거리의 다양성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매우 그렇다	33	12.7
그렇다	57	22.0
보통이다	96	37.1
그렇지 않다	51	19.7
매우 그렇지 않다	22	8.5
계	259	100.0

<표 27> 기 타 <매우 그렇다 5점~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구 분	전 체	장수군 內 거주자	장수군 外 거주자
음/식료품 가격의 적정성	2.61	2.46	2.81
토산품 가격의 적정성	2.93	2.88	3.07
먹거리의 다양성	3.11	3.06	3.18

5. 행사내용에 대한 평가

(1) 참가자의 행사(프로그램) 평가

응답자들에게 이번 축제 기간 중에 개최된 행사들을 제시하고 이 행사들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행사’와 ‘가장 재미없었던 행사’ 그리고 ‘가장 유익했던 행사’를 3가지씩 선정하도록 했다. 응답자들에게 제시된 행사는 24개였으며, ‘가장 재미있었던 행사’에 응답한 건수는 657건, ‘가장 재미없었던 행사’에 응답한 건수는 505건, ‘가장 유익했던 행사’에 응답한 건수는 504건이었다.

① 가장 재미있었던 행사

응답자들이 선정한 ‘가장 재미있었던 행사’는 ‘불꽃놀이’ ‘주논개 선발대회’ ‘전야제’ ‘마당극’ ‘풍물 야시장’ ‘장수사과 특별기획전’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9>

② 가장 재미없었던 행사

축제 중 ‘가장 재미없었던 행사’에 대해 응답자들은 ‘한시 백일장’ ‘의암 백일장’ ‘역사속 논개 이야기’ ‘기념식’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군수배 테니스 대회’ ‘호남좌도 농악’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표 29>

③ 가장 유익했던 행사

응답자들은 ‘역사속 논개 이야기’ ‘주논개 선발대회’ ‘전통문화예술 체험’ ‘풍물야시장’ ‘불꽃놀이’ ‘마당극’ ‘경로잔치(의암사)’ ‘장수사과 특별 기획전’ ‘향토음식 맛자랑 품평회’ 등의 순으로 유익했던 행사를 선정했다. <표 29>

‘역사속 논개 이야기’의 경우는 ‘가장 유익했던 행사’와 ‘가장 재미없었던 행사’의 상위권에 선정되어 유익성과 재미성이 서로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다.

<표 29> 참가자의 행사(프로그램) 평가

순번	행 사 명	재미있었던 행사	재미없었던 행사	유익했던 행사
1	마당극	57	19	25
2	전야제	88	28	19
3	불꽃놀이	130	10	31
4	의암 주논개 제례	13	21	19
5	기념식	9	29	8
6	논개 충절무	19	17	27
7	호남좌도농악	15	27	16
8	주논개 진혼무 공연	12	11	12
9	주논개 선발대회	100	13	42
10	군민화합 한마당	21	10	17
11	의암 백일장	12	40	23
12	한시 백일장	3	43	17
13	경로잔치(의암사)	9	17	24
14	무진장 게이트볼 대회	10	18	7
15	전북 남녀 궁도대회	9	20	9
16	군수배 테니스 대회	6	30	6
17	논개배 탁구대회	6	31	6
18	향토음식 맛자랑 품평회	23	14	22
19	전통문화예술 체험	18	11	36
20	장수사과 특별기획전	28	15	24
21	전국 사진 공모전 및 촬영대회	8	12	10
22	풍물 야시장	31	17	34
23	사진전시회, 서예전시회	14	16	26
24	역사속 논개 이야기	15	36	44
계		657	505	504

(2) 행사에 대한 부문별 만족도

행사와 관련하여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5점 척도를 이용해 조사하였다. 문항에 대해 '매우 만족'으로 응답한 경우는 5점, '만족' 4점, '보통' 3점, '불만족' 2점, '매우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1점으로 처리했다. 이 만족도 조사는 '공연/문화행사' '체험행사' '전시행사' '개·폐막식'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조사했다.

① 공연/문화행사

공연/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6%가 '만족 한다'는 반응을 보였고,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7.1%에 불과해 참가자들이 공연행사에 비교적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보통'이라는 답변은 (43.1%) <표 30>

그러나 작년의 경우 '공연행사'에 대한 만족도가 60.0%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공연행사와 문화행사에 관한 내용을 함께 조사한 것도 만족도를 낮추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사 일정이 줄어 공연/문화 행사에 대한 비중이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매우 만족' 5점, '매우 불만족' 1점으로 계산한 점수에 의하면, 공연/문화행사에 대한 전체의 평균점수는 3.54점으로 그래도 4개 부문 행사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와 30~40대의 연령층이 각각 3.59점과 3.36점, 50대 이상의 연령층은 3.64점으로 평가해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34>

지역별로는 장수군내 거주자들(3.52점)과 장수군 외 거주자들(3.54점)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표30> 공연/문화행사 평가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매우 그렇다	34	13.3
그렇다	90	35.3
보통이다	110	43.1
그렇지 않다	14	5.5
매우 그렇지 않다	4	1.6
행사 불참	3	1.2
계	255	100.0

② 체험행사

체험행사에 대해 '만족 한다'는 비율은 42.1%로 작년의 33.3%보다 약 9%정도 증가하였으며, '불만족 한다'는 응답도 15.4%로 작년의 13.6%에 비해 약간 증가 하였다. <표 31>

체험행사에 대한 응답자들의 만족도는 평균 3.36점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미만이 연령층이 3.63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60대 이상 연령층과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각

각 3.48점과 3.45점으로 평가 했다. 또 20대는 3.08점으로 평가해 가장 낮은 점수를 주었고, 30대가 3.11점을 주어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표 34>

지역별로는 장수군 외 거주자(3.26점)들이 장수군내 거주자들(3.39점)보다 약간 낮은 점수를 주었다.

<표31> 체험행사 평가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매우 그렇다	26	10.5
그렇다	78	31.6
보통이다	101	40.9
그렇지 않다	33	13.4
매우 그렇지 않다	5	2.0
행사 불참	4	1.6
계	247	100.0

③ 전시행사

전시행사에 대해 '만족 한다'는 응답자는 40.8%로 나타나 작년의 33.7%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불만족'을 표시한 응답자는 14.5%로 작년과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표 32>

20대미만의 연령층과 50대 연령층이 각각 3.52점과 3.61점으로 높은 점수를 주었으며, 20대에서 40대의 연령층은 3.18점~3.21점의 비교적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표 34>

지역별로는 장수군 외 거주자들(3.41점)이 장수군내 거주자들(3.29점)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표 32> 전시행사 평가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매우 그렇다	29	11.7
그렇다	72	29.1
보통이다	108	43.7
그렇지 않다	27	10.9
매우 그렇지 않다	9	3.6
행사 불참	2	0.8
계	247	100.0

④ 개 · 폐막식

이 행사에 대해 34.3%의 응답자들이 만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작년의 45.6%에 비해 상당히 만족도가 낮아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14.3%로 작년(7.0%)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33>

<표 33> 개·폐막식 평가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매우 그렇다	22	9.2
그렇다	60	25.1
보통이다	106	44.4
그렇지 않다	25	10.5
매우 그렇지 않다	9	3.8
행사 불참	17	7.1
계	239	100.0

<표 34> 연령별·지역별 행사 만족도 <매우 그렇다 5점~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구 분	전체	20대 이하	30~40	50대 이상	장수군 내 거주자	장수군 외 거주자
공연/문화 행사	3.54	3.59	3.38	3.64	3.52	3.54
체험 행사	3.36	3.36	3.25	3.47	3.39	3.26
전시 행사	3.35	3.35	3.20	3.49	3.29	3.42
개·폐막식	3.27	3.36	3.08	3.27	3.29	3.24

⑦ 응답자들이 평가한 점수

본 조사에 응한 응답자들은 “올해 거행된 ‘의암 주논개 대축제’에 대해 몇 점을 주겠느냐”는 질문에 평균 73.30점으로 올해의 축제를 평가했다. <표 35> 작년의 경우 평균 76.38점의 점수를 받았는데, 올해의 점수와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작년 수준의 평균점수를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응답자들의 점수분포를 보면 10점부터 100점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80점을 준 응답자들이 전체의 18.5%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그 다음이 70점(17.7%), 60점(13.5%), 100점(6.9%)과 90점(6.9%)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들의 평가점수를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79.83점을 주어 가장 높게 평가했고, 다음이 20대 이하로 76.31점으로 올해의 축제를 평가했다. 가장 낮은 점수를 준 연령층은 40대로 68.49점을 주었고, 다음이 30대로 70.62점을 주었다. <표 35>

지역별로 보면, 장수군 외 거주자들(72.79)보다 장수군내 거주자들의 평가점수(73.42)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35> 참가자가 평가한 축제 점수 <단위: 점(100점 만점)>

구 분	전체	20대 이하	30~40	50대 이상	장수군 내 거주자	장수군 외 거주자
평가점수	73.30	74.41	69.56	77.18	73.42	72.79

6. 축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의암 주논개 대축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8개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본 축제가 ‘장수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다는 데 가장 많은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 ‘애향심 제고에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순으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작년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표 36 및 표 37>

또한 작년과 마찬가지로 본 축제가 ‘주민의 여가 활동에 기여’하거나 ‘자녀 교육에 기여’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작년과는 달리 장수군 외 거주자들이 장수군내 거주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 분석에서는 대체로 연령층이 높을수록 논개 축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논개 대축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단위: %>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8.3	37.6	28.7	3.9	1.6	100.0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	29.7	37.1	25.5	6.6	1.2	100.0
애향심 제고에 기여	26.2	40.6	27.3	4.3	1.6	100.0
전통문화 및 문화재 개발에 기여	24.5	38.1	30.7	5.8	0.8	100.0
장수 이미지 제고에 기여	35.2	32.0	25.8	4.7	2.3	100.0
지역문화 정체성확보에 기여	27.1	36.1	30.6	4.7	1.6	100.0
주민 여가 활동에 기여	21.7	37.8	29.5	9.4	1.6	100.0
자녀 교육에 기여	16.5	31.1	34.6	12.2	5.5	100.0

<표 37> 지역에 미치는 영향(연령별 · 거주지별)

<매우 그렇다 5점~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구 분	전체	20대 이하	30~40	50대 이상	장수군내 거주자	장수군외 거주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87	3.78	3.89	4.14	3.83	3.96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	3.88	3.84	3.81	4.11	3.79	4.02
애향심 제고에 기여	3.86	3.68	3.97	4.10	3.76	3.99
전통문화 및 문화재 개발에 기여	3.80	3.71	3.85	4.00	3.72	3.96
장수 이미지 제고에 기여	3.93	3.93	3.88	3.98	3.95	3.91
지역문화 정체성확보에 기여	3.82	3.76	3.80	4.03	3.79	3.88
주민 여가 활동에 기여	3.69	3.80	3.53	3.65	3.71	3.66
자녀 교육에 기여	3.41	3.38	3.50	3.40	3.39	3.48

7. 기 타

① 응답자들이 축제기간 동안 사용한 경비를 보면, '1~3만원'이 41.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만원 미만(29.9%), 4~6만원(16.6%)의 순으로 나타나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이 작년에 비해 경비를 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다음에도 의암 주논개 대축제를 보러올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37.1%의 응답자들이 '매우 있다'는 반응을 나타냈고, 32.9%의 응답자들은 '어느 정도 있다'는 답을 해, 이 축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와 기대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③ 이 축제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응답자의 22.5%가 '홍보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교통문제'(17.1%)와 '편의시설 문제'(17.1%), '프로그램의 질'(13.6%), '안내요원 및 시설'(10.4%)의 순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④ 응답자들이 꼽은 '보완되어야 할 사업'은 '주민 참여 행사 개발'(37.5%), '연계관광 코스 개발'(36.0%), '지역특산물 판매'(16.3%)의 순이었다.

참고로 기타 의견으로 제시된 내용을 보면, '지역주민과 외지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주차 공간 확대',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게 홍보 강화', '휴식 공간 마련', '논개를 소개하는 홍보물 배포', '음식 값 저렴하게 해야' 등이 있었다.

⑤ 응답자들의 36.0%는 '의암 주논개 대축제'에 5회 이상 참가했으며, 처음 참가한 사람도 32.2%에 달했다. '1~2회 참가'한 사람은 18.2%, '3~4회 참가'한 사람은 13.6%였다.

장수군내 거주자는 '5회 이상 참가'한 사람이 52.3%로 가장 많았고, 장수군 외 전북지역 거주자의 경우 처음 참가한 사람은 44.1%였고, 나머지는 모두 2회 이상 참가하였다. 전북지역 이외의 거주자들의 경우도 처음 참가한 사람이 69.6%로 가장 많았으나 나머지는 2회 이상 이 축제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는 '5회 이상 참가자가 47.4%로 가장 많았고, 20대는 처음 참가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55.2%). 30대는 '처음 참가'(43.4%), '5회 이상 참가'(32.1%)의 순이었고, 40대는 '처음 참가'(31.7%), '5회 이상 참가'(29.3%), '1~2회 참가'(24.4%)의 순이었다. 50대 이상 연령층이 높을수록 참가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 연령층의 경우는 5회 이상 참가한 비율이 75.9%에 달했다.

⑥ 축제 참가자들의 축제 참여 방법은 대체로 '곁라서 참여'(50.5%)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

지하고 있으며, '적극 참여'하는 비율은 25.4%였다. 또 '거의 참여 않거나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4.1%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행사 참여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나머지 연령층은 20대 미만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비슷한 참여도를 나타냈다.

장수군내 거주자들이 장수군 외 거주자들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본 론 -질적평가(현장조사 결과분석)

1. 축제 기획에 대한 타당성 평가

(1)축제의 취지, 목적, 컨셉, 지역특성 및 규모에 대한 적절성 평가

의암 주논개 대축제는 임진란 당시 구국의 일념으로 적장을 꺼안고 남강에 투신하신 논개님의 우국충절을 선양하고 3만 장수군민의 화합과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논개님의 탄신일(음력 9월 3일)을 전후하여 행해지는 장수군의 대표적인 지역축제이다.

언제부터, 또 어떤 형태로 행해졌는지는 자세한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현재의 의암 주논개 대축제는 2000년도를 전후해 전국적인 논개정신 선양의 필요성과 지역화합의 문화 창구로서의 역할 기대로 그 틀을 갖추게 되었다.

탄신430주년(2004년) 의암 주논개 대축제는 '논개정신 선양'이라는 목적아래 지역민의 화합과 문화 소외지역인 장수군에 다양한 문화예술기회 제공을 위해 기획된 종합축제라 할 수 있다.

금번 의암 주논개 대축제는 그간의 '축제는 있고 논개 선양은 없다'라는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곳곳에서 보였다. 논개 제례와 논개 충절무 뿐이던 선양 프로그램이 주논개 진혼무와 역사 속 논개 이야기 등 논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삽입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었다.

그러나 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행한 행사치고는 그 규모나 짜임새 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기에 부족함이 있었고 관광객 또는 행사 방문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계가 있었다.

다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논개라는 인물의 역사성과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 전국 규모의 경주마 육성목장 착공 등 중장기적인 장수군의 발전 가능성을 감안할 때 논개 대축제 역시 전국 규모의 독창적인 축제로의 발전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2)축제 기획의 전문성과 완결성에 대한 평가

인류학자 '호이징하'는 인간을 '축제하는 인간'이라고 했다. 이는 축제라는 것이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즐기는 공동체적 의식을 표현한 말이다. 따라서 축제를 기획한다는 것은 사람간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며 의사소통의 창구인 것이다. 더불어 축제를 기획하고 만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요구를 받아들여 가장 공통이 되는 분모를 찾아내는 고도의 훈련이 필요하다.

의암 주논개 대축제의 기획/운영/실행을 담당하는 상근 조직은 (사)의암 주논개 정신 선양회이다. 그러나 이 상근 조직은 사무국장 1인과 간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기획에 대한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선양회 이사들로 구성된 축제 기획위원회 역시 축제 프로그램에 대

한 가부 결정을 하는 의결 기구로서 기획에 관한 구체적인 아이템 개발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의암 주논개 대축제는 매년 진행되고 있는 기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벤트 업체나 사회단체, 공무원 조직에 아이템을 의뢰하는 실정이며 그 아이템이 지역 현실과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의 검증 없이 행사를 치러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암 주논개 대축제를 대표할 만한 메인 프로그램이 없고 외부 관광객을 흡인할 만한 메리트를 제시하기도 어렵다.

2억이라는 예산을 다분히 나열식 행사로 소모하면서 문화적/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해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제 행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개선을 통해 차후 행사에 대한 명확한 컨셉을 설정하고 지역민이 만들고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 고유의 행사를 만들기 위해 한시적이거나 전문성과 체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상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3) 축제의 독창성과 참신성에 대한 평가

지역축제의 성패여부는 주제의 참신성과 기획의 독창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제의 참신성이라 함은 축제가 가지는 성격과도 일맥상통한다.

의암 주논개 대축제의 경우는 논개라는 인물의 상징성과 애국심 함양이 주제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주제는 타 지역과의 차별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과도 관련이 있는데 1970~1980년대에는 애국심이나 반공이 화두가 되어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지만, 현대인들은 도통 관심이 없다.

장수군의 경우 일단 주제의 참신성 면에서 다른 축제보다 경쟁력이 약하다. 논개라는 인물의 역사성이 전국적이기는 하나 그 지명도가 다소 약하고 거사 장소가 진주이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주 논개'로 인식하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이다.

기획의 독창성 면에서도 주제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낼만한 프로그램은 없으며 다른 행사장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 대회, ○○ 노래자랑, ○○ 체험 등 축제 주제와 무관한 행사들이 논개 대축제의 주요 프로그램들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행사의 기획은 주제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분석, 그리고 전문 기획인력이 결합되어 참신한 아이디어 회의를 거쳐 다듬어져야만 비로소 타 지역과의 경쟁력 있는 축제 기획을 기대할 수 있다. 금번 의암 주논개 대축제는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 축제로의 발전 가능성을 스스로 달아 놓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축제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되기도 하지만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사람이 주가 되는 문화 생성물이기에 앞으로는 좀더 신중하고 심도 깊은 프로그램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탄신430주년 의암 주논개 대축제 프로그램은 주요행사, 부대행사, 상설행사로 크게 3개 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에서 논개정신 선양과 연관된 행사는 논개제례와 논개 총절무, 논개 진혼무, 역사 속 논개 이야기가 있었다. 전년도 평가에서 지적하였던 논개 선양에 대한 프로그램의 부실을 극복하려 애쓴 흔적이 보이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의암 주논개 대축제'라는 축제명이 무색할 정도로 주제와 무관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기타 다른 프로그램은 타 지역축제와 차별성이 없었다.

축제가 대규모 공연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수군의 여건을 감안해 볼 때 군민들은 축제가 아니면 수준 높은 예술 공연이나 대규모 공연을 접할 기회가 없다. 전야제나 군민화합 한마당의 경우도 공연의 질적 수준이 낮았으며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었다. 미디어에 집중적으로 노출된 청소년의 경우 연예인 프로모션(이것이 꼭 옳다는 것은 아니다)이 아니면 행사장에 오질 않는다. 그러면서도 축제 기획자들은 축제를 외면하는 청소년들에게 서운함을 표시한다. 축제가 관객의 눈높이를 맞춰야 하는 이유이다. 오지 않는 관람객을 탓할 것이 아니라 관객이 오게끔 축제를 포장해야 한다.

또한 의암 주논개 대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논개 선발대회의 경우 아무리 군민들이 좋아하고 많은 관객을 동원할 수 있다고 해도 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논개 정신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다음 행사에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2. 축제 예산에 대한 평가

(1) 예산 편성/ 집행의 적절성과 투명성

금번 의암 주논개 대축제는 약 2억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치러졌다. 먼저 축제 현장을 둘러보고 의암 주논개 대축제 예산이 2억 2천만원이라는 것에 놀랐다. 지역축제에서 2억 2천만원이라는 예산은 실로 적지 않은 예산이다. 그런데 의암 주논개 대축제는 2억 2천만원이라는 돈에 맞지 않는 스케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유는 메인 프로그램이라는 전야제, 논개 선발대회, 무대 및 하드웨어 설치에 전체 예산의 반 정도를 배정하였다. 그 나머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회단체나 동호회에 행사에 필요한 예산 전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축제 구성에 짜임새가 없어 보였다. 더욱이 금번 축제의 경우 작년보다 하루가 줄었으나 예산은 변함이 없었다. 새롭게 기획된 프로그램도 있고,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감안해도 분명 금번 축제는 스케일 면에서는 작년과 변한 것이 없었다. 또한 행사에 참여하는 사회단체나 예술단체에 행사비 전부를 지원하는 방법이 옳지 않다는 점을 작년 평가에서도 지적한 바 있으나 금번 축제에서도 시정되지 않았다.

축제에는 항상 거품이 있기 마련이다. 그 거품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과제이다. 금번 축제에 필요한 하드웨어 업체를 입찰하여 결정하듯이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부분도 검증이 필요하다. 하루가 줄었다고 예산까지 같이 줄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타당성을 제시했어야 옳다. 효과가 미약한 프로그램을 과감히 없애고 참신하고 발전적인 프로그램이 기획되었다면, 그리고 군민들이, 관광객들이 만족하였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나 금번 의암 주논개 대축제가 예년에 비해 군민들이 더 만족하였는지는 장담할 수 없겠다.

3. 축제 준비과정에 대한 평가

(1)지역 주민들의 참여정도에 대한 평가

금번 축제에서 긍정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다. 지역축제의 생산자는 지역주민이다. 지역 주민은 축제의 생산자임과 동시에 축제 소비자가 된다. 따라서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를 우리는 성공한 축제라고 한다. 축제가 경제적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상품화 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축제를 단순한 상품만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의암 주논개 대축제에서는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주민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다. 장수 한우고기 시식회가 그렇고 천천중학교 과학교실이나 장안문화 예술촌의 전통문화예술체험이 그러했다. 한우 시식회는 장수 최고의 특산물인 장수 한우를 관광객들이 직접 시식하며 맛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천천중학교 과학교실은 행사장을 찾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단연 인기가 있었다. 장안 문화예술촌의 전통문화예술체험은 지역 전통문화 창달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더불어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독려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말을 키우는 월곡목장의 말타기 체험이나 마차를 이용한 의암 공원 산책, 사과 재배 농가들의 자체적인 품평회 및 세일 판매 등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2)조직 구성과 일관성에 대한 평가

의암 주논개 대축제의 민간이양 이후 의암 주논개 대축제는 그나마 성실히 민간차원에서 행사를 치르고 있다. 전체 선양위원의 총회운영과 이사들의 이사회 운영, 그리고 결정과정의 합리성 등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상근 조직인 사무국 역시 논개 정신 선양과 의암 주논개 대축제 진행을 잘 하고는 있으나 인력면에서 볼 때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으로 이 큰 행사를 치러내기에는 역부족인 듯 하다. 자연히 일부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장수군의 간섭 아닌 간섭도 받아야 한다. 어차피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축제가 개최되기 3개월 전부터는 공무원 조직에서 인원을 지원 받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 관련 인사를 영입하여 함께 축제 준비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3)축제 홍보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

잘 차려진 잔치를 위해 먼 길을 달려오는 것은 잘 차려진 잔치를 보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어디에 어떤 것이 잘 차려져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올 수가 없는 것이다. 축제를 홍보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의암 주논개 대축제가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사람들에게 그리 높지 않은 인지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행 의암 주논개 대축

제가 다른 지역 사람들이 흥미를 느낄만한 독특한 프로그램이나 빼어난 자연경관, 연계 관광지 등이 없다는 약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축제 홍보가 장수군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그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장수군에만 걸려있는 현수막이나 광고탑, 애드벌룬은 외부 관광객을 유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소한 전라북도권(전주권), 대전/충남권 정도는 축제 홍보 예산을 배정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새로운 매체개발 또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금번 축제 평가 결과를 보면 전라북도 외 지역 사람들이 축제에 대한 정보 습득 창구로 인터넷을 이용하였다.(17.8%) 따라서 전국적인 논개정신 선양 사업전개와 전국적인 축제규모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인터넷에 대한 투자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인터넷을 통한 축제 홍보는 저비용 고효율의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여 모든 지역축제가 선호하는 홍보 방식이다.

지역축제의 성패는 홍보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광범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일간지나 중앙의 TV 방송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함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누구나 행하고 싶은 홍보 수법이다. 그러나 이는 지역축제가 감당하기에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성사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중앙의 일간지나 TV방송이 프로그램화할 수 있는 '꺼리'를 제공하고 그것이 보도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지역축제들은 연구해야 한다.

충북 괴산에서는 군민이 한 솥 밥을 먹겠다는 전략아래 4만명이 먹을 수 있는 가마솥을 제작하고 있다. 좀 황당한 아이디어이기는 하지만 이 황당한 아이디어 때문에 많은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다. 심지어 1차 가마솥 제작이 실패로 끝나자 언론은 앞 다투어 재 시도를 독려하고 나섰다. 의암 주논개 대축제가 배워야 할 점이다. 누구도 시도해 보지 않은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이 돈 안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4)행사장 배치의 완성도 및 안전성에 대한 평가

의암 주논개 대축제의 행사장 구성은 의암공원 특설무대를 중심으로 주차장 부지, 의암호와 논개 사당으로 펼쳐져 있다. 장수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나 외지 관람객의 경우 시설 요건에 상당한 부러움을 느끼고 있다.

금번 의암 주논개 대축제의 행사장 배치는 작년과 대동소이 하기는 하지만 주차장을 순수한 주차장 형태로 유지하고 메인 무대 주변에 전통 체험관과 역사 속 논개이야기 체험관을 배치하였다. 잡상인을 막아 보기 위한 시도였으나 그 역시 완벽한 잡상인 통제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메인무대에서 행사가 있을 때면 체험관 음향 사용이 어려운 단점도 있었다.

관객들은 메인 무대가 아니면 볼거리가 없어 방황하는 모습을 보였고 예년처럼 주차장에서의 행사가 없으니 오히려 볼거리가 줄어든 느낌이였다. 명년 축제 때는 주차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주차장에서의 행사를 계획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금번 축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메인 행사장과 논개 사당을 이어 주는 산책로 역시 볼거리나 체험거리가 없어 축제 관람객을 논개 사당으로 유인하지 못했으며 의암호에 설치한 논개 바보트는 그저 디스플레이에 지나지 않았다. 전통 체험장 역시 전통의 의미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그저 간이 시설인 마큐텐트로 그 공간을 유지하여 전통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대를 비롯한 하드웨어 구성은 타 지역축제와 차별성이 없다는 단점은 있었지만 안전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

(5)기타 시설 및 관람객 서비스에 관한 평가

지역축제에서 관람객에 대한 배려는 주최측이 관람객에게 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는 기본적인 사항이 되었다. 관람객은 좀더 편안한 여건에서 질 높은 문화를 향유하기 원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것을 체험하기 원한다.

의암 주논개 대축제를 방문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불편은 주차문제이다. 협소한 주차공간은 차라리 읍내에 차를 주차하고 걸어오는 것이 더 나을 듯 싶었다.

다음으로 겪게 되는 고통이 화장실의 부족이다. 연인원 1만여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감에도 화장실은 주차장 화장실과 의암공원 관리사무소 화장실 두 곳뿐이고 그마저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에는 좁았다. 다만 상시 청소인원 배치와 화장지, 비누 등의 배치는 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편을 희석시키는 배려가 되었다.

또 한가지 불편이 행사장내에 설치된 음수대의 문제이다. 지하수를 이용한 음수대로 수질검사까지 마친 것은 좋는데 안타깝게도 외부 상인들이 자신들의 부스에 물을 끌어가기 위해 호스를 꽂아 실제로 관람객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다. 음수를 제공하는 부스나 혹은 종합안내소 정도에 음수를 준비하는 방안을 꼭 고려해야 할 것이다.

축제하면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먹거리인데 의암 주논개 대축제 먹거리의 경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을 듯 하다. 외부 잡상인들이야 어쩔 수 없었다지만 읍면에서 운영한 먹거리 부스의 경우 특이할 만한 메뉴도 없었으며 가격 또한 타 지역축제와 비교해볼 때 비싼 편이었다. 결국 축제 관람객의 대부분인 군민의 주머니에서 또 다른 군민의 주머니를 채워 주는 역할 밖에는 기대할 수 없었다.

행사장을 찾는 대부분이 장수군민이어서 숙박시설에 대한 불편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행사장이 읍내에 있어서 찾아오는 것은 별로 불편함이 없었다.

셔틀버스 운영에 있어서는 군민 서비스 차원에서 좋았지만 자주 운영되지 않았고 장수읍민을 제외한 다른 면에 거주하는 군민은 서둘러 행사장을 떠나야만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4. 축제 진행과정에 대한 평가

(1)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도, 참여도, 만족도 평가

전체적으로 볼 때 관람자들의 호응은 축제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상반되게 나타났다. 단순히 대규모 이벤트인 전야제나 논개 선발대회, 군민노래자랑에 대해서는 관람객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는 관람객 대부분이 장수군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군민들이 논개정신 선양이나 고급문화의 향유를 기대하기보다는 단순히 축제를 '일탈' 혹은 '재미'의 기회로만 삼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외부 관람객의 경우는 논개정신 선양이나 장수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 체험을 기대하는 반면 군민은 지친 일상에서의 탈출을 시도하는 해방구로서 축제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축제 참여도의 문제인데,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사장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밤공기가 쌀쌀하여 행사 중간에 관람객이 자리를 떠버려 아쉬웠다. 가능하다면 의암 주논개 대축제의 야간행사는 저녁 9시 이전에 행사를 종료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2) 축제 진행/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

전반적인 축제의 진행 및 운영에는 별 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관람객들을 위한 의자의 설치나 축제 출연자들을 위한 대기실 구성, 상주 사회자를 통한 안내 방송 등을 실시한 점은 높이 살만하다.

행사 일정이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입구에 종합 안내판을 설치한 점도 좋았으며 다양한 행사를 공백 없이 유기적으로 진행하여 관람객들이 만족도를 높인 것도 고무적이다.

무대 부문의 운영에 있어서는 약간 미숙한 점이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차량 문제였다.

축제에 조금이라도 연관된 차량은 다 주차되어 있었고 다시 그 차량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일대 관람객이나 부스 운영자가 많은 불편을 겪었다. 다음 행사 때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금번 논개 대축제에서 관람객들은 세 번의 불꽃놀이를 관람하였다. 이유가 뭔지는 몰라도 시도 때도(?) 없이 올라가는 불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 행사 끝나고 불꽃놀이, 저 행사 끝나고 불꽃놀이 보다는 한번에 집약하여 연출하는 것이 좋으며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도 사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관람자들의 통제부분이다. 자기 흥에 못 이겨 무대에 올라오는 취객이 있었으며 어린이들은 무슨 놀이동산에 놀러온 것처럼 무대 밑에서 뒹굴고 떠들며 행사 전체의 흐름을 흐리게 하고 있었다. 다음 행사에는 반드시 무대 연출을 도와주는 진행요원의 배치와 행사 전체의 흐름을 조율하는 총 연출자의 선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작은 소동에 대해서도 경찰들의 대처가 너무 늦고 행사 진행에 방해를

주는 인원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3)프로그램의 완성도에 대한 평가(부문별 전체평가)

● 주 요 행 사

극단 우금치의 마당극 공연은 500여명의 관객이 관람하였으나 주제가 다들 알고 있는 내용에 극적인 요소가 적어 특별한 재미를 주지는 못했다.

전야제는 색다른 특수효과 사용으로 축제의 서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많은 출연진들과 다양한 게스트 초청으로 그 맛을 살린 반면 군민 모두가 좋아할 만한 대규모 공연이 없어 아쉬웠다. 대규모 공연 유치나 방송프로그램 유치로 장수군 전체를 축제 분위기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논개 제례는 논개 정신 선양이라는 취지에도 맞고 1년에 한번 나라를 위해 산화하신 논개님에 대해 제를 올린다는 의미도 커 논개 대축제 고유 프로그램으로 손색이 없다. 다만 좀더 많은 인원이 제례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기념식은 일종의 개막식 같은 프로그램이었는데 너무 많은 축사 인원과 자신들의 공적을 선전하는 자리로 전락된 것 같아 보기에 좋지 않았다. 기왕에 군민의 날 기념식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면 전 군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비전 선포식 같은 것을 연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주논개 총절무는 장수군 여성들이 기획하여 공연하였다는 점에서 좋았으며 극의 이해를 돕는 무대 막의 제작으로 한층 돋보이는 공연을 하였다.

계남 초등학교 농악단과 호남 좌도 농악단이 주가 된 호남좌도 농악시연은 관객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공연을 연출하였으며 어린이들의 뛰어난 연주 실력으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금번 축제에서 새롭게 기획된 논개 진혼무는 국악과 무용의 접목으로 논개님의 혼을 위로하는 공연을 하였으며 정적인 프로그램을 보완하기 위해 시도된 타악 퍼포먼스도 좋은 반응을 보였다.

많은 참가 신청자도 있었고 또 가장 많은 관람객이 관람한 논개 선발대회는 진행시간이 무려 4시간이나 소요되어 지루하였고 초청 게스트가 중간에 바뀌거나 격에 맞지 않는 섭외로 진행상의 미숙을 보였다. 또한 분위기에 맞지 않는 불꽃놀이 연출이나 이원화된 하드업체 섭외로 전체적인 운영이 맞지 않았다. 더불어 아무리 많은 군민들이 호응해도 여성을 상품화 시키는 듯한 선발대회는 지양되어야 한다.

군민 노래자랑과 함께 실시된 군민화합 한마당은 예년에 비해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장기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달집 주위를 돌며 신명에 겨워 뛰는 군민들의 모습이 축제의 본래 취지와도 맞는 것 같아 보기에 좋았다.

● 부 대 행 사

지역축제에서 부대행사는 말 그대로 주요행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현대 축제의 흐름을 보면 부대행사가 알차고 재미있을수록 관람객들의 만족도는 높아진다. 그러나 의암 논개 대축제 부대행사는 그저 동호회 잔치 수준에 머물고 있고 가족단위 참가자, 또는 외부 관광객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가 없다. 물론 행사장이 이원화 되어 그 분위기를 메인 행사와 연계시키기에는 부족했다는 단점이 있지만 명년 행사에는 반드시 이 부대 행사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상 설 행 사

전통문화 예술체험은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작품전시와 함께 다양한 전통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공간이었다. 체험관을 운영하는 운영인력의 경험부족으로 진행상의 미숙이 있었기는 하지만 지역문화 창달이라는 의미에서는 값진 행사로 보인다.

장수사과 특별기획전은 장수 특산물인 사과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으로 매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시의 형태나 프로그램 운영이 매년 같은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재미적인 요소가 떨어지고 참가자들 또한 지루해 하는 느낌을 받았다. 명년행사에는 생산 농가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수사과 품평회나 전국 대학생 사과요리 경연대회 같은 행사를 기획해도 괜찮을 듯 하다.

전국 사진 공모전 및 촬영대회는 예년에 비해 참가자가 많지 않았다. 결국 소재의 부재이거나 촬영대회에 참가할 만한 메리트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적정 규모의 상금이나 상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보인다.

풍물야시장은 풍물은 없고 장사꾼만 있었다. 그들을 양성화 할 공간이 필요하며 한 곳에 모아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단속을 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사진/시화/서예 전시는 논개 사당 앞에서 진행되었는데 명년 행사에는 의암공원 산책로로 자리를 옮겨 실시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하다.

역사속의 논개 이야기는 금번 행사에 처음으로 시도된 행사였다. 논개님의 일대기를 체험해보는 체험관이었는데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으로 호응이 좋지는 못하였다. 명년 축제에는 체험

요소와 운영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축제의 지역문화/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 평가

(1) 지역문화 정체성 및 발전에 대한 기여

지역축제가 지역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민의 화합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의암 주논개 대축제는 지역 문화 정체성 및 군민들의 문화향수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히 높다. 이는 장수군에 별다른 공연이나 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일정이나 기간도 상당부분 군민들의 라이프스타일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추수가 끝나고 하늘에 제를 올리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축제 기원설에 의존해보면 의암 주논개 대축제의 경우 바쁜 농사일이 마무리되고 군민들이 한데 어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올해의 경우에는 장안문화예술촌, 장수축협, 천천중학교가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주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의암 주논개 대축제가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바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본 축제가 지속적이고 또 발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여기에 있다.

(2)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축제의 문화적/ 교육적 가치 증진 못지않게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이 경제적 효과이다. 축제의 경제적 효과라 함은 축제를 통한 무형의 문화적 자산을 유형의 경제적 가치로 재생산함을 의미하고, 축제를 통해 소비를 촉진시키고 외부관광객 유치로 통한 외부 자본의 유입을 뜻한다. 이는 축제를 개최하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바라는 일이고 실제로 이를 위해 지자체가 전력투구하고 있다. 그러나 의암 주논개 대축제의 관람객 대부분이 장수군민이고 보면 그 돈이 그 돈이고 외부 관광객에 의한 자본의 유입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관람객 대부분의 지출은 식/음료 부분에서 행해졌고 장수군 특산품이나 캐릭터 상품, 숙박, 체험부문 지출은 미미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축제가 많은 돈을 투자하여 이루어지는데 버는 것 없이 쓰기만 한다면 이는 경제논리에도 맞지 않고 축제 개최 의미도 퇴색된다. 주제의 독창성과 프로그램의 참신성, 그리고 편안한 관람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의암 주논개 대축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관광객을 축제장으로 유인해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선행 과제로 여겨진다.

또한 장수군이 자랑하는 사과, 한우, 오미자 등 특산물 판매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논개 캐릭터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IV. 축제 총평

1. 서술적 총평

2. 축제 대안 제시

IV. 축제 총평 -평가결과 종합

1. 서술적 총평

의암 주논개 대축제를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아무리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고 해도 장수군의 지역색과 문화를 이번 평가로 단정 지어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번 의암 주논개 대축제 평가에 앞서 평가단은 설문 조사를 하고, 심층 면접을 진행하는 평가 보조요원들에게 설문과 인터뷰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설문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함이었다.

전년도 평가를 바탕으로 금번 의암 주논개 대축제의 평가를 실시하며 이번에도 역시 장수군의 지역색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자성하였다. ‘그저 그러려니’ 했던 당초의 예상을 깨고 이번에도 역시 축제에 대한 군민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군민들 스스로가 이웃한 축제나 성공했다고 평가받은 타 지역의 축제를 경험하고 축제를 상대 평가했다면 결과가 조금은 상이하게 나왔겠지만 어쨌든 장수군의 의암 주논개 대축제는 축제 목적 중 지역민의 화합이나 여가선용, 문화향유 면에서는 그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의암 주논개 대축제의 홍보 범위나 방법면에서 축제 방문객이 지역민에 한정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외부 관광객의 비율도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40%이상)

이러한 결과를 아무리 평가절하 한다고 해도 어쨌든 외부 관광객의 비율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비율이었다. 이는 의암 주논개 대축제가 앞으로 외부 관광객을 유인하고 축제가 전국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며 홍보활동만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주최측이 원하는 축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고무적인 결과였다.

이번 평가결과를 종합하며 발견한 또 한가지 특징은 장수군의 인구 분포상 노년층의 방문객이 현저히 많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에 반해 젊은층(30대 미만)의 방문객도 상당히 많았다는 점이다. 이는 의암 주논개 대축제가 그저 노인들의 잔치가 아니라는 점과 장수군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 역시 지역축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젊은층의 축제 관심은 노년층과는 달리 축제를 스스로 변화시키고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대부분의 지역축제가 기성세대들에 의해 그저 치러내기식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데 반해 의암 주논개 대축제는 젊은층이 축제에 관심을 보여 그들 스스로가 축제의 주체이며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내재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의암 주논개 대축제가 이들을 적극적으로 축제에 동참시키려면 30대가 가장인 가족단위(아빠, 엄마, 자녀)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들이 타겟이 되는 젊은 감각의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축제의 커다란 목적이기도 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축제 평가 결과이다. 앞서도 지적하였지만 의암 주논개 대축제가 아무리 지역민의 화합과 문화향유에 기여한다고 해도 자본주의 경제논리상 투자만하고 성과가 없다면 이러한 축제는 언젠가는 반드시 지역민에게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 조사자 대부분은 이번 축제에서 3만원 미만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이 비용은 대부분이 식/음료를 구입하는데 이용하였으며 지역 특산물이나 축제 캐릭터 상품 구입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추후 행사에서 시급하게 보완되어야 할 사항인 지역 농 특산물 판매부스의 확충, 그리고 의암 주논개 대축제 캐릭터 상품 개발 등이 절실히 요구되는 결과이다.

또한 장수군민이나 외부관광객 모두가 지적한 연계관광지 개발은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을 그대로 대변한 평가 결과이다. 대부분의 축제방문객은 축제 관람을 위해 하루 정도의 시간을 할애한다. 주말 관람객을 고려해 볼 때 최소 1일간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연계관광지 또는 관광코스 개발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축제는 주기전승의 의례이자 모든 참가자가 함께 어우러져 만드는 화합의 장이다.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에 그쳐서도 안되고 인위적으로 무엇을 만들어 내려고 해서도 안 되는 인간 흥의 표현이며 생생한 문화의 장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축제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과 그 가치를 살리지 못하고 관에 의해 또는 몇몇 사람들의 머리에 의존하여 주제도 불분명하고 특색도 없는 이벤트로 전락되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축제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과 축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암 주논개 대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중심으로 축제 전반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V. 축제 총평 - 발전적 대안 제시

2. 축제 대안 제시

(1) 지자체의 관심이 축제 성공을 부르는 지름길

축제가 아무리 민에 의해 주도되고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축제가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1970년대 운동장 축제의 전형을 답습하던 때야 관이 축제를 주도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축제가 민에 의해 기획되고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축제가 다 성공하지 않는 것 보면 꼭 축제가 민에 의해 주도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성공한 축제들을 살펴보면 그 이면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행정의 도움이 배경에 있다. 단순히 어느 실과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맡아 그저 단체장에게 상황보고만 하고 단체장의 축제 관람 동선 계획만 수립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축제 정보를 공유하고 좀더 발전적인 축제 기획을 이루어 낼 때 축제는 성공하는 것이다.

(2) 새롭고 책임감 있는 축제 추진조직 구성

현재 의암 주논개 대축제는 앞서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사무국장 1명과 간사 1명이 상근 조직으로 구성되어 축제를 치러내고 있다. 물론 이 인원이 축제를 원활하게 치러낼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논개 선양의 고유 업무 수행과 함께 축제를 치러내기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시급한 인원의 보강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 전문가를 축제에 참여시키는 축제 추진 조직체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축제 추진 조직체가 1년 내내 상근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으므로 최소한의 기간으로 추진 조직체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에 필요한 인원은 사무국장 1명과 간사 1명, 공무원 조직 중에서 기획과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2명, 그리고 외부 문화 전문가 1명으로 약 5명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인원이 직접 축제 기획을 손질하고 홍보를 병행하며 축제를 진행해 낸다면 의암 주논개 대축제 역시 가까운 시일 내에 성공적인 전국 축제로의 도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3)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홍보 전략 수립

의암 주논개 대축제 평가를 진행하는 동안 가장 아쉬웠던 것이 바로 홍보 분야이다. 어떤 전

락에 의해 어떤 전술로 홍보를 진행했는지의 구체적 계획도 없었고, 홍보물이 주위의 시선을 끌만한 메리트도 없었다. 장수군내 광고탑이나 현수막, 애드벌룬, 포스터가 홍보의 전부였고 종합안내소에 비치된 안내 책자로는 축제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없었다. TV 자막광고를 집행하였다고는 하나 빈도수가 낮아 접촉기회가 너무 적었고 신문광고의 경우 지방지에만 한정되어 그 효과를 측정해 내기가 어려웠다.

현재 의암 주논개 대축제의 홍보범위는 장수군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웃한 전주나 대전 같은 대도시 홍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홍보 사절단이나 타 지역 축제 홍보 부스 참여는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물론 이 부분은 적지 않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시간 투자를 요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추진 조직이 구성되고 나면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추진조직 내에 홍보를 전담하는 인원 배정과 전체 예산의 일정부분을 홍보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좀더 많은 외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중요한 문제점은 온라인 홍보의 부재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 의암 주논개 대축제를 온라인상에서 홍보하는 방법은 장수군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축제 관련 사이트가 전부이다. 인터넷은 주로 젊은층이나 외지 관광객들이 현지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주요하게 이용하는 매체이므로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홍보매체이다. 또한 비용이 저렴하고 축제에 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더 없이 좋은 홍보매체이므로 명년 의암 주논개 대축제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다양한 정보를 업데이트 해야 할 것이다.

(4)업무 총괄을 담당 할 대행업체 선정

지역의 축제를 외부 업체에 의뢰한다는 것은 사실 조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몇몇 행사는 업체 때문에 실패한 경우도 있으며 지역색을 모르는 업체에 일을 의뢰하여 낭패를 본 축제도 있다. 또한 업체 자체가 여기 저기 일을 하다보니 축제마다의 차별성을 잃고 축제가 비슷비슷해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의암 주논개 대축제를 총괄할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선정을 제안하는 것은 현재의 의암 주논개 대축제가 연출 구심점이 없어 중구난방으로 주먹구구식 행사운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몇 해를 진행해오는 동안 프로그램의 차별성은 떨어지고 거의 같은 포맷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연히 군민들의 기대감 또한 상실되어 축제를 주최하는 선양회나 행정적 지원을 하는 장수군청 역시 심각한 매너리즘(예를 들면 아무 사고 없이 그저 무사히, 작년만큼만 하는 사고방식)에 빠져 있다. 우수한 업체를 통한 아이템 도출이나 지역축제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기대하기 위해 이제는 정말 대행사를 선정해 보직도 하다.

(5)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일정 조정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축제 개최일은 평균 4일이다. 아무리 봄/가을로 나누어 축제를 진행한다 해도 장수군을 대표하는 지역축제를 2일간 실시하는 것은 아쉬움이 있다.(실제로는 1일) 최소한 3일은 진행되어야만 다양하고 많은 인원이 축제장을 방문할 수 있다. 더욱이 올 해는 그 다음이 일요일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다. 명년 행사에는 조정이 되었으면 한다. 의암 주논개 대축제의 개최일은 음력 9월 3일이다. 올해는 9월 3일이 토요일이었지만 내년에는 수요일이 된다. 결국 음력 9월 3일을 고집할 경우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무시하고 평일에 축제를 진행해야 한다.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비판할 수 있으나 축제 개최일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가령 음력 9월 3일이 들어 있는 주의 금/토/일처럼 축제일을 정례화 시키는 방법이 좋을 듯 하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이제는 축제가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춰야 할 시점이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걸판지게 잔치를 준비했는데 즐기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 실패한 축제가 됨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한다.

(6)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지역주민 참여 유도

설문 결과에서도 보듯이 축제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지역주민이 직접 축제 주최자로 참여한 행사가 늘었지만 아직도 타 지역 축제와 비교해 볼 때 지역 주민의 참여는 저조한 편이다.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몇몇 사람들이 전통문화 체험이나 저자거리 재현이 없어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 프로그램이 재미있어서라기보다는 과거에 대한 향수를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명년 행사에는 군민의 날과 즈음하여 전 군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읍/면 대항 경연프로그램을 준비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더불어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 두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를테면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짚을 이용한 경연이라든지, 읍/면별 허수아비 만들기 경연 같은 것도 가을 논개 축제와는 분위기가 어울릴 것으로 보인다.

V. 별첨

- 탄신 430주년 의암 주논개
대축제 설문지

의암 주논개 대축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탄신430주년 의암 주논개 대축제 평가 및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의암 주논개 대축제'에 대해 귀하께서 생각하고 느끼신 바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의견은 '의암 주논개 대축제'를 발전시키는데 보탬이 되는 귀한 자료로 활용 될 것이며, 또한 귀하께서 응답 해주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오직 통계분석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 10.

사단법인 의암 주논개 정신 선양회

※ 해당되는 곳에 O 또는 V 표시를 해주십시오.

1. 현재 장수군의 거리에서 축제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

- ① 많이 느낀다.
- ② 다소 느낀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별로 못 느낀다.
- ⑤ 전혀 못 느낀다.

2. 축제에 대한 정보(개최여부, 행사장, 공연일정 등)는 주로 무엇을 통해 얻으셨습니까?

- ① 신문
- ② 잡지
- ③ TV
- ④ 라디오
- ⑤ 각종 팸플릿 및 안내책자
- ⑥ 현수막 및 포스터
- ⑦ 주위사람
- ⑧ 인터넷
- ⑨ 여행사 및 관광안내소
- ⑩ 기타(구체적으로)

3. 축제에 대한 홍보가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되었다.
- ② 잘 되었다.
- ③ 보통이다.
- ④ 잘 안되었다.
- ⑤ 매우 잘 안되었다.

4. 축제 개막 전에 축제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 ① 잘 알고 있었다.
- ② 조금 알고 있었다.
- ③ 들어본 적은 있다
- ④ 전혀 몰랐다.

5. 축제에 참가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지역축제에 관심이 많아서 ② 다양한 문화체험을 위해
- ③ 지역 주민의 화합을 위해 ④ 다른 사람의 권유로
- ⑤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 ⑥ 우연히 참가
- ⑦ 기타(구체적으로)

6. 행사장까지 오시는데 주로 이용하신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 ①버스
- ②택시
- ③자가용
- ④도보
- ⑤기타(구체적으로)

7. 장수 이외의 지역에서 오셨다면 며칠 간 머무르실 계획입니까?

- ①무박 1일
- ②1박 2일
- ③2박 3일
- ④3박 4일
- ⑤기타(구체적으로)

8. 축제와 관련된 다음 사항들의 질문에 O 또는 V 표시를 해주십시오.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접 근 성	행사장까지 접근이 용이하다.					
	행사장간의 이동이 편리하다.					
	주변관광지와 잘 연계되어 있다.					
안내 및 시설	안내요원이 친절하다.					
	안내요원의 수가 충분하다.					
	안내 시설이 잘 되어있다.					
	안내 자료의 내용이 충실하다.					
편의 시설	주차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휴식공간이 잘 되어있다.					
	화장실이 잘 정리되어있다.					
행사 내용	행사내용이 다양하다.					
	행사내용이 재미있다.					
	일반인이 참여할 행사가 많다.					
기 타	음식료품의 가격이 적당하다.					
	토산품 등의 가격이 적당하다.					
	먹거리가 다양하다.					

※ 다음은 축제 기간동안 개최되는 행사들입니다. 아래를 참고 하셔서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1.마당극	2.전야제	3.불꽃놀이
4.의암 주논개 제례	5.기 념 식	6.논개 총절무
7.호남좌도농악	8.주논개 진혼무 공연	9.주논개 선발대회
10.군민화합 한마당	11.의암 백일장	12.한시 백일장
13.경노잔치(의암사)	14.무진장 게이트볼 대회	15.전북 남녀 궁도대회
16.군수배 테니스 대회	17.논개배 탁구대회	18.향토음식 맛자랑 품평회
19.전통문화예술체험	20.장수사과 특별기획전	21.전국사진공모전 및 촬영대회
22.풍물 야시장	23.사진시화 서예 전시회	24.역사속 논개이야기

9. 축제 행사 중 가장 재미있었던 행사는 무엇입니까?

3가지만 선정해 주십시오. (_____)

10. 축제 행사 중 가장 재미없었던 행사는 무엇입니까?

3가지만 선정해 주십시오. (_____)

11. 축제 행사 중 가장 유익했던 행사는 무엇입니까?

3가지만 선정해 주십시오. (_____)

12. 축제 행사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O 또는 V 표시를 해주십시오.

행사내용	매우 만족	만 족	보 통	불 만 족	매우 불만족	참여하지 않음
공연/문화행사						
체험행사						
전시행사						
개폐막식						

13. 귀하가 '의암 주논개 대축제'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점을 주시겠습니까?

_____ 점(100점 만점)

14. 귀하가 축제 기간동안 사용한 경비는 얼마입니까?(교통비, 숙박비 제외)

- ①1만원 미만
- ②1~3만원
- ③4~6만원
- ④7~9만원
- ⑤10만원 이상

15. 다음에도 ‘의암 주논개 대축제’에 방문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매우 있다.
- ②어느 정도 있다.
- ③잘 모르겠다.
- ④별로 없다
- ⑤전혀 없다.

16. 의암 주논개 대축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교통문제
- ②숙박문제
- ③홍보문제
- ④편의시설 문제
- ⑤안내요원 및 안내시설
- ⑥프로그램의 질
- ⑦축제 운영
- ⑧기타(구체적으로)

17. 의암 주논개 대축제에 추가(보완) 되었으면 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 ①지역 특산물 판매 ②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 ③축제와 연계된 관광 코스 개발
- ④기타(구체적으로)

18. 귀하는 지금까지 ‘의암 주논개 대축제’에 몇 번 정도 참여하셨습니다?

- ①처음 참가
- ②1~2회 참가
- ③3~4회 참가
- ④5회 이상

19. 축제 기간동안 각종 행사에 어떻게 참여하고 계십니까?

- ①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②골라서 참여한다.
- ③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 ④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20. ‘의암 주논개 대축제’가 장수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관광 산업발전에 도움을 준다.					
애항심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전통 문화 및 문화재 개발에 도움을 준다.					
장수의 이미지 향상에 도움을 준다.					
지역문화 정체성 확보에 도움을 준다.					
주민의 여가활동에 도움을 준다.					
자녀 교육에 도움을 준다.					

※ 귀하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21. 귀하의 성별은?

- ①남자
- ②여자

22. 귀하의 연령은?

- ①20대 미만
- ②20대
- ③30대
- ④40대
- ⑤50대
- ⑥60대 이상

23. 귀하의 거주지는?

- ①장수군내
- ②장수군 외 전북지역
- ③전북 외 지역(_____도 _____시/군)

24. 귀하의 최종학력은?

- ①무학
- ②초등학교 재/졸
- ③중학교 재/졸
- ④고등학교 재/졸
- ⑤대학교 재/졸
- ⑥대학원 재학이상

25. 귀하의 직업은?

- ①농·어업 및 축산업
- ②사무·행정직(회사원, 은행원, 사회단체 등)
- ③일반공무원
- ④교사
- ⑤일반전문직(의·약사, 판·검사, 교수, 연구원 등)
- ⑥생산직 근로자
- ⑦주부
- ⑧자영업
- ⑨서비스직(유통, 알선, 중개, 운전기사 등)
- ⑩학생
- ⑪무직
- ⑫기타(구체적으로)

※ 지금까지 설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탄신 430주년 의암 주논개 대축제에 대한
평가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04. 11

우석대학교 사회조사 연구팀

책임 연구원

우석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장 낙



사)의암 주논개 정신 선양회장 귀하

